

하나 더!

<문학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/ 결론은 4번>

①

문학 언어는 기본적으로 함축적 언어로
표현과 의미가 1 대 多
EX)물- 생명력, 순수, 죽음...

따라서 보기가 없다면 의미를 물을 수 없음
EX)/보기 없이/ 물은 모성애다 X

②

그렇다면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무조건
표현 즉 PQ!
따라서 PQ를 개념어로 끊기
EX)의인화된 청자에게//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

그리고 나오는지만 확인!

③

그럼 나와 있다고 무조건 정답일까?
아니다

만약 보기에서 비교 대조가 나오거나
자연과 속세, 천상계와 지상계, 현실과 꿈 같은 이분법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
다면
독서처럼 범주를 건드릴 수 있음
EX) 달(자연물)은 화자의 정치적 삶(세속)을 의미하는군

이때는 나와도 틀림!
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보기가 나오면 범주까지!

④

제일 어려운 부분은 보기에도 없는데 정답인 경우!

보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함

EX) 보기- 김영랑은 순수한 시세계, 현실의 명리를 따르지 않고 순수함을 지킴

선지- 부정적 시대현실에 김영랑은 분개했군, 현실에 대한 대결의지를 가지고 있군.

이럴 경우 대부분은 글에 그 내용이 있음!

요령 참 트루임!

즉 판단의 기준점을 '보기OR 글'로 확장하자!

⑤

주석은 꼭 보기!

내용일치 100퍼센트

팁!

-이렇게 글의 판단의 근거가 있는 경우는 주로 발문이 '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'

언제나처럼

9평도 잘 박요!

추천은 사랑!